

# 속편은 물질

통권 279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2 2022



## 건강을 위협하는 제철소, 이제는 철 들 때!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함께 지난 11월 28일 당진시청에서 국내 일관제철소의 2021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과 건강피해, 경제적 손실비용을 분석한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대제철, 탄소중립 계획 밝히고 조속히 추진해야”



위기충남공동행동 투쟁 결의대회 갖고 천막농성 돌입



기어이 불붙은 '마지막 석탄발전소'... 멀어지는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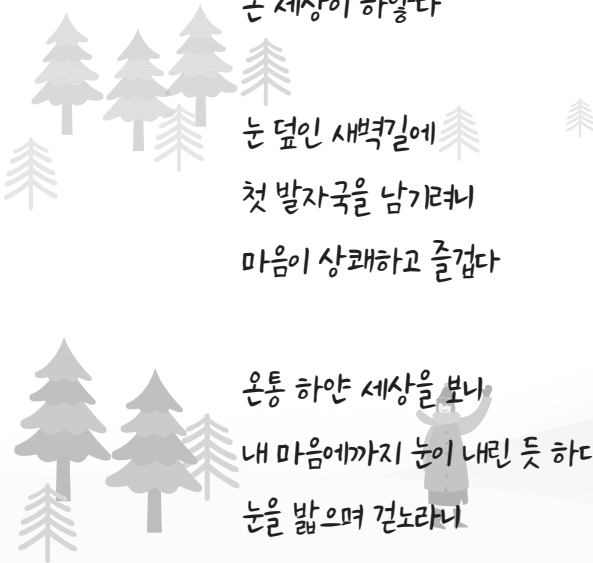
- ▶ 발행일 2022. 12.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희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4 사진으로 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주요사업
- 10 지역환경초점1  
| “현대제철, 탄소중립 계획 밝히고 조속히 추진해야”
- 11 지역환경초점2  
|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 12 지역환경초점3  
| 당진시 산업폐수 배출량 전국 12위
- 13 지역환경초점4  
| “기후위기 역주행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4 지역환경초점5  
| 위기충남공동행동 투쟁 결의대회 갖고 천막농성 돌입
- 16 전국환경초점1  
| ‘환경과학’ 빠진 ‘국립환경과학원’
- 17 전국환경초점2  
| ‘반대하든 말든’ 난장판 된 한수원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 18 전국환경초점3  
| 기어이 불붙은 ‘마지막 석탄발전소’...멀어지는 탄소중립
- 19 11월 살림살이
- 20 11월 활동소식
- 22 12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눈 위에 남긴 발자국

용혜원



밤새 하얀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다  
눈 덮인 새벽길에  
첫 발자국을 남기려니  
마음이 상쾌하고 즐겁다

온통 하얀 세상을 보니  
내 마음에까지 눈이 내린 듯 하다  
눈을 밟으며 걷노라니  
노래가 절로 나온다



행복은 늘 주변에 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는 것만 같다  
오늘은 하얀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만들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련다

용혜원

용혜원 시인은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6년 영암극화를 창단, 연극활동을 하였으며, 1978년부터 '다락방 문인'에서 활동하던 중 '문학과의식'을 통해 등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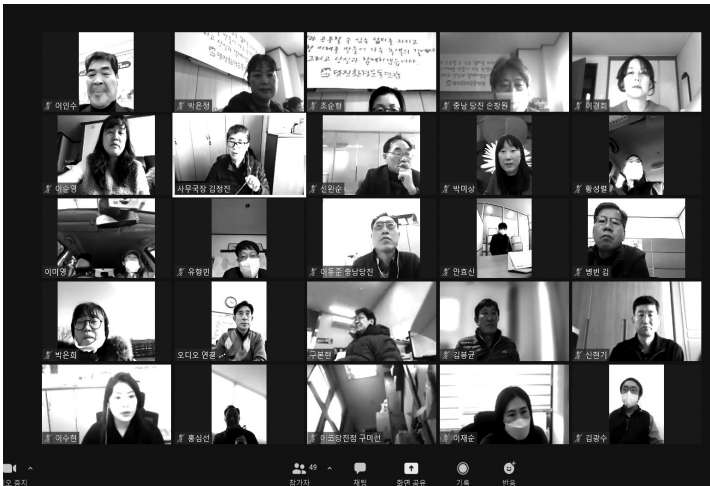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선후보 2030 탈석탄 공약 기자회견



▲정의로운전환 특구 촉구 기자회견



▲2022년 온라인 정기총회 개최 기자회견



▲당진시 시내버스공영제 시민운동본부 추진 출범 기자회견

# 2022년 주요사업(1~4월)



▲ 핵발전소(SMR)당진건설 망언 규탄 기자회견



▲ 해수유통! 석문호를 살리자! 물의날 캠페인



▲ 전국공동행동, 석탄발전지역 SMR건설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지구의날 기념 행사 '걷고, 즐기고, 심고'

# 사진으로 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해변정화활동



▲ '옥시, 애경 사지도 쓰지도 맙시다' 불매 1인 시위



▲ 환경의날 기념 '슬기로운 재활용품 화분 만들기' 행사 기자회견



▲ 2022년 상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 2022년 주요사업(5~8월)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워크숍



▲ 소들섬 공사 강행 한전 규탄 궐기대회



▲ SPC(삼립기업) 규탄 1인 시위



▲ '석탄과 석유대신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의날 캠페인

# 사진으로 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 전국 9.24 기후정의 행진



▲ 2022년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개최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정의행동 선포 기자회견



▲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행사



# 2022년 주요사업(9~12월)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개최



▲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평가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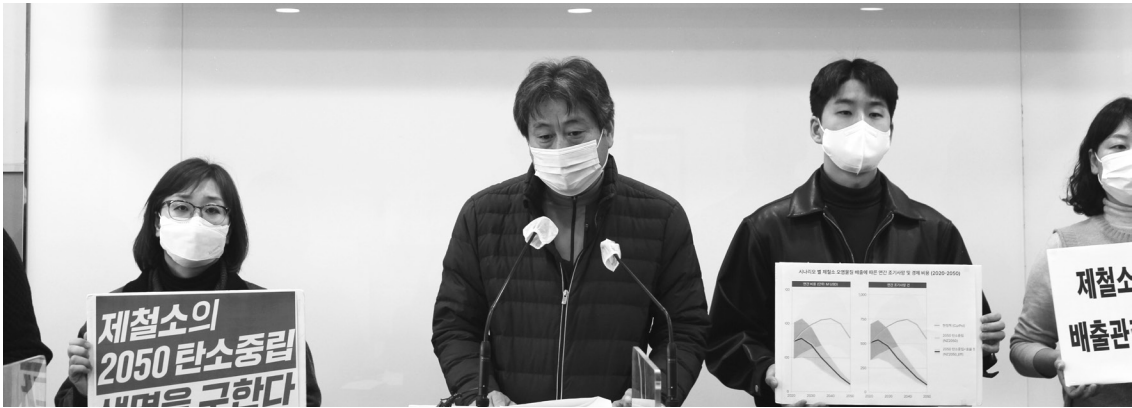
▲ 충남에너지전환 전문가 양성과정 선진지 견학 워크숍



▲ 위기충남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현대제철, 탄소중립 계획 밝히고 조속히 추진해야”

“국내 제철소 2050 탄소중립으로 조기사망 1만 명 줄어”  
“제철소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및 배출 관리 철저히”



당진환경운동연합 주체로 지난 11월 28일 당진시청에서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손창원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진·포항·광양 등 국내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1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함께 지난달 28일 당진시청에서 국내 일관제철소의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과 건강피해, 경제적 손실비용을 분석한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2021년 배출한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는 연간 조기사망자 34명, 경제 손실비용 2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전로 방식에서 벗어날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고서는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굴뚝TMS) 배출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대기오염 피해의 일부만 드러난 것”이라며 “올해 3월 굴뚝TMS 확대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점이나 TMS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구 등을 고려할 때 현대제철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서에서 분석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정기춘 캠페이너는 “철강산업은 세계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자,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고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라며 “국내 제철산업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누적 조기사망자가 1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63조원의 경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제철산업 탄소중립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제철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 현대제철이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밝히고 조속히 추진할 것 △현대제철이 탄소중립 달성 전이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당진시대]

##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법원, 한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요구 '기각'  
"불법 철탑 철거...원상복구 행정대집행 해야"



삼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에 철탑이 세워져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삼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당진시는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야생생물 보호 대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소들섬 구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법원

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보고,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심리불속행’을 결정한 바 있다. (중략) 하지만 한전은 법원의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며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23일에 나온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과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희봉·김학로·이봉기)에서는 “한전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 자명해졌다”며 “당진시는 당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2심·3심까지 상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결국 철탑을 완공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 당진시 산업폐수 배출량 전국 12위

2020~2021년 수질TMS 연간 배출량 보고서 발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산업폐수 배출량 전국 13위

2021년 전국 시·군·구 산업폐수 COD 배출량(kg/년)

순위	지역		배출량
1	울산	울주	1,076,170
2	충북	청주	876,079
3	전남	여수	757,538
4	경기	파주	742,893
5	경북	포항	607,513
6	충남	서산	564,449
7	충남	아산	378,119
8	경기	평택	331,078
9	경북	경산	310,141
10	전남	광양	271,424
11	경기	화성	236,946
12	충남	당진	210,757
13	경기	포천	167,281
14	전북	군산	163,937
15	세종	세종	157,712

2021년 전국 시·군·구 산업폐수 COD 배출량(kg/년)

순위	지역		배출량
1	울산	울주	1,076,170
2	충북	청주	876,079
3	전남	여수	757,538
4	경기	파주	742,893
5	경북	포항	607,513
6	충남	서산	564,449
7	충남	아산	378,119
8	경기	평택	331,078
9	경북	경산	310,141
10	전남	광양	271,424
11	경기	화성	236,946
12	충남	당진	210,757
13	경기	포천	167,281
14	전북	군산	163,937
15	세종	세종	157,712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집계 결과 당진시의 산업폐수 배출량이 전국 190개 시·군·구 중에서 12위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전국 사업장별 폐수 배출량에서 전국 13위 업체로 집계됐다. (2020년~2021년 2년간, COD 기준)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진시의 산업폐수 배출량과 현대제철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경부가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굴뚝 대기TMS에 비해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며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0년~2021년 당진지역 사업장 수질TMS 연간배출량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하수를 포함한 당진시의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은 항목별로 전국 51위~78위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나, 산업폐수만을 대상으로 한 배출량 순위에서는 전국 8위~14위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당진시는 2020년에 23만8822kg, 2021년에 21만757kg으로 각각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한 기초지역은 울산시 울주군(2021년 107만6170kg)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시(87만6079kg)와 전남 여수시(75만7538kg)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지역	배출업체	배출량
1	아산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폐수	267,445
2	서산	현대오일뱅크	184,392
3	서산	대산산업용수	183,032
4	당진	현대제철	179,170
5	서산	일지화학	66,872
6	서천	한솔제지	59,083
7	아산	국일제지	46,077
8	서산	롯데케미칼(주)	41,202
9	서산	한화토탈에너지스	39,735
10	천안	천안3폐수	34,320
11	서산	한화임팩트	28,893
12	아산	신창제지공업	22,260
13	천안	한솔제지	21,744
14	아산	아산테크노밸리폐수	20,790
15	당진	송산2폐수	16,672

부유물질(SS)에서 당진시는 2021년에는 4만 5041kg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또한 총질소(T-N)는 2021년에 24만8094kg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총인(T-P)의 경우 전년대비 92%가 감소해 2021년에 165kg을 배출했다.

전국 배출업체별 산업폐수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은 13위~1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현대제철은 2020년에는 19만5104kg, 2021년에는 17만9170kg으로 각각 전국 13위 수준을 유지했다.

부유물질(SS)에서 현대제철은 2021년에 4만 383kg을 배출했으며, 총질소(T-N)는 2021년에 22만9701kg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총인(T-P)에서는 2021년에 50kg을 배출해 전년대비 95%를 감축했다. 당진시의 폐수 총인(T-P) 배출량이 같은 기간에 크게 떨어진 것도 현대제철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감시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사업장 및 처리시설 배출량은 바다나 하천에 대한 최종방류수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자체 최종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통계에 잡히지만, 중간처리 후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폐수처리장의 배출량에 합산되므로 사업장별 배출량 순위는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산업폐수 배출량 순위는 13위~16위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폐수처리장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위~8위로 순위가 오르게 된다.

[출처 : 당진시대]

# “기후위기 역주행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당진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핵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핵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발표된 10차 전기본(안)은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핵발전 비중은 32.4%로 높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춰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030년 발전원 구성안인 핵발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에서, 신재생에너지는 8.6% 줄이고 핵발전은 8.5%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1월 30일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나 홀로 역주행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라며 “위험한 핵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0차 전기본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재생에너

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없다”며 “또한 핵발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18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책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속속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축소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나라의 미래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10차 전기본(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나 홀로 역주행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10차 전기본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당진신문]

## 위기충남공동행동 투쟁 결의대회 갖고 천막농성 돌입



지난 11월 30일 충남도청에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0일 충남도청 마당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가 사실상 김태흠 지사와 ‘강대강’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인권·노동·농민·환경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오후 3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통해 4대 요구와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공동행동의 4대 요구 및 10대 과제와 관련 김 지사는 ‘바뀐 것이 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지사는 “반노동·반인권 충남도지사 정책에 맞선다고 하는데 지금 노동계 관련 제도 등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반노동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인권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민선7기 도청에서 바뀐 것이 현재까지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동행동은 충남도의회 341회 정기회의 중 인권, 노동, 환경, 농업 등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가 예정된 기간 동안 4대 요구와 10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충남도청·도

의회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투쟁을 전개하며 충남도의회 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중략)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또한 쌀값 폭락과 농자제값 상승으로 파산할 지경에 이른 농민들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으나, 정작 피해가 집중될 해당 지역주민들과 노동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가 질식될 지경에 이른 상황에도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은 예산감축이란 미명하에 백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천막농성과 함께 12월 14일 도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뉴스스토리 일부 발췌]

## 성명서 ‘환경과학’ 빠진 ‘국립환경과학원’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중략)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중략)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중략)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중략)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중략).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중략).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략)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중략)

(중략)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이하 생략)

2022년 11월 1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 ‘반대하든 말든’ 난장판 된 한수원식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고리2 수명연장’ 부산 해운대·금정·수영·남구 주민 공청회  
 환경단체 반발에 고함·몸싸움 이어져도 계속 진행  
 환경평가서 초안 듣는 공청회인데…대상지역 열람자는 단 125명  
 환경단체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라” 한수원 “적법하게 개최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진행한 두 번째 부산지역 주민공청회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해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 장내 소란 이어져도 '들리지 않는 공청회' 강행한 한수원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환경단체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안요원들의 몸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곳곳에서 "부산 시민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나", "무슨 근거로 공청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적느냐"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중략) 공청회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곳곳에서 환경단체 회원들과 한수원 관계자, 보안요원 간의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이어졌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외치는 소리에 공청회를 정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장내에

있더라도 공청회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한수원은 오후 3시 정각에 공청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다.

환경평가서 초안 의견 듣는다면  
 서… 240만명 중 열람자는 '158명'

이날 공청회는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략)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초안 열람 대상인 부산지역 10개 구·군 주민 240여만명 가운데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사람은 158명으로 집계됐다. (중략)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날 공청회 전 기자회견을 통해 "초안을 열람한 주민이 극히 적고, 수백 쪽에 달하는 초안 자체도 어렵다"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하거나, 별도 설명회를 여는 등 공청회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이날 공청회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료했다"며, "앞서 무산된 부산 동·동래·연제·북·부산진구와 울산 울주군 공청회는 일정을 다시 잡아 열겠다"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 일부 발췌]

# 기어이 불붙은 ‘마지막 석탄발전소’... 멀어지는 탄소중립

삼척화력발전소 최초 점화 테스트  
환경단체 “탈석탄법 제정해야”



지역 주민과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삼척화력발전소 앞에서 ‘최초 점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블루파워 발전소에서 지난 30일 ‘최초 점화’가 이뤄졌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에 이뤄지는 최초 점화는 발전연료를 태우는 보일러 연소실부터 연소 가스가 배출되는 굴뚝까지의 연소·배출 계통을 점검하기 위해 보일러 버너에 처음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중략) 30일 최초 점화가 이뤄진 1호기는 2023년 10월, 2호기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략) 하지만 삼척화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최초 점화로 발전소 굴뚝에서 처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초 점화가 주연료인 석탄을 태우며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과 환경운동가는 이런 최초 점화를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에서 좀 더 멀어져 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주민 등이 30일 오후 발전소 앞에 모여 “최초 점화를 멈추라”고 외친 이유다. 석탄은 기후위기 주범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를 보면, 2020년 전세계 에너지의 약 27%를 공급하며 연료 연소 부문 온실가스의 약 45%를 배출한 것이 바로 석탄이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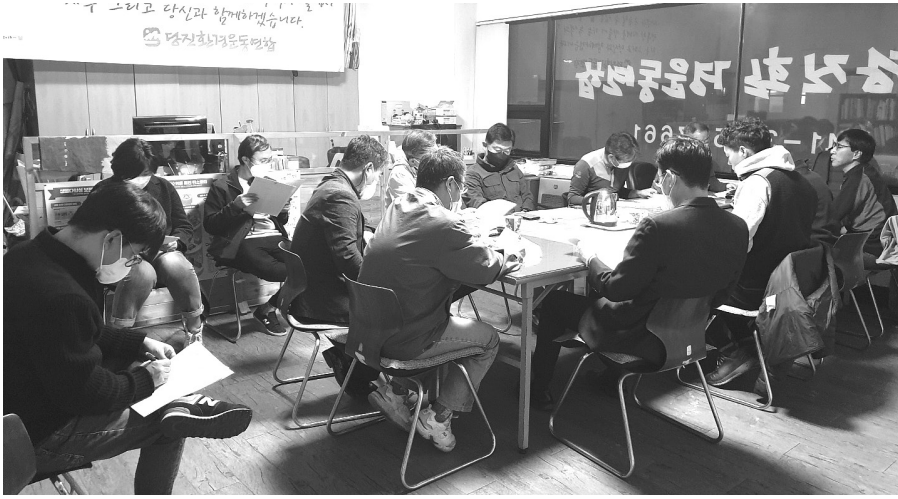
략). 기후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 중단 요구는 신규 발전소 중 가장 늦게 착공돼 공사 초기 단계인 삼척화력에 특히 집중됐다. 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발전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는 동안 건설 공사는 계속 이어져 최초 점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중략) 탈석탄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중략)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발전소 건설사업을 방치해 왔다”며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하 생략)

[출처:한겨레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11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1,306,507	인건비	급여	4,540,000
회 비	개인회비	5,975,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6,310
	계	6,045,000		계	5,372,1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682,21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78,560
	계	682,21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482,540
	계			기타운영비	362,21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계	923,310
	계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218,000
보조금	기타사업			생태보전사업	886,250
	계			생화환경사업	145,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조직 회원사업	890,220
	계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11,323,909		연대사업	419,600
	계	11,323,909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계	2,559,070	
	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계	
			이월액	이월액	40,503,116
			계	40,503,116	
월수입 총계		18,051,119	월지출 총계		8,854,510
수입 합계		49,357,626	지출 합계		49,357,626



### 11월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 11월 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에코생협 당진점 한탄강나들이 참가

11월 12일 40여명의 에코생협 당진점 조합원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오랜만에 한탄강 둘레길 걷기에 참여했습니다.



###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11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인권, 농민, 환경, 노동위기에 맞서자'며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개최

11월 17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를 열었습  
니다.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 참가

11월18일~19일 통영RCE세자트라숲  
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에  
참여했습니다.



### 당진시 제2차 에너지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 참가

11월 23일,30일 당진시 제2차 에너지  
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에 참여  
했습니다.



# 01

## 일반사업

- ❖ 12/01 위기충남 공동행동 도의회 상임위 대응 및 기자회견 - 충남도청  
충남 정의로운전환 조례 관련 민주노총 협의 - 내포
- ❖ 12/02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 당진 방문 간담회 -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 ❖ 12/05 위기충남 공동행동 도의회 상임위 대응 - 충남도청
- ❖ 12/06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기획단 회의 - 사무실  
충남 정의로운 전환 종합 토론회 - 충남도 보훈회관  
12월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 무수동식당
- ❖ 12/07 위기충남 공동행동 대표자 회의 - 충남노동권익센터
- ❖ 12/08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수소포럼 관련 회의 - 호서대  
위기충남 공동행동 당진 선전전 - 구터미널 로터리
- ❖ 12/09 화력발전 건강영향조사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 도청
- ❖ 12/10~12/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 ❖ 12/12 위기충남 공동행동 도의회 예결위 대응 및 기자회견 - 충남도청
- ❖ 12/13 기후위기 공감토크콘서트(조천호) - 당진문화예술학교
- ❖ 12/14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 - 당진상공회의소
- ❖ 12/16 위기충남 공동행동 본회의 대응 기자회견 - 충남도청  
금강유역환경포럼 - 대전NGO센터
- ❖ 12/19 당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민기획단 회의 - 미정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당진시청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회의 - 미정
- ❖ 12/20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 - 석문간척지
- ❖ 12/21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체회의 - 미정
- ❖ 12/22 '충남의 바다' 공청회 - 홍성 청운대
- ❖ 12/23 환경운동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3차 공론장 - 온라인
- ❖ 12/26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정기총회 준비위 1차 회의 - 사무실

# 02

##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2/27(화) 11시30분

# 03

##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현대제철 슬래그 오염수 유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준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종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자 유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준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치웅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채남기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민국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허인옥 현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울곡어린이집 영축농장 정우건설(주)해송

#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덕분에 2022년에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2023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2. 메일, 팩스나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은  
041-355-7661로 전화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